

예수님을 만나다 5: 생명수와 세상의 빛이신 예수

요한복음 7 장 & 8 장

-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절기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내시곤 하셨습니다.
- 요한복음 7 장과 8 장에서는 초막절을 맞아 그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수와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십니다.

1. 성경 교사님들이 요한복음 7 장과 8 장 내용을 요약해 주시겠습니다.

2. 구약에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초막절의 기원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절을 어떻게 지켰는지 설명해 주십시오.

레위기 23: 39 밭에서 난 곡식을 다 거두고 난 다음, 너희는 일곱째 달 보름날부터 이레 동안 주에게 절기를 지켜야 한다. 첫날은 안식하는 날이다. 여드렛날도 안식하는 날이다.

3. 초막절을 지키면서 행했던 물의 의식과 빛의 의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의식이 행해질 때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설명해 주십시오.

1) 물의 의식:

2) 빛의 의식: